

풍랑속의 주님

QT는 Quiet Time의 약자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01 찬양과 기도



<오늘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345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통일 461)

보통으로



1. 캄 캄한밤	사	나	운	바	람	불	때	만	경	창	과
2. 비 바람이	사	무	섭	계	바	물	아	치	고	그	성
3. 절 망중에	그	사	공	떨	면	서	도	한	줄	기	의
4. 아버지여	이	죄	인	굽	어	보	사	성	난	풍	랑
5. 모진바람	또	험	한	큰	물	결	이	제	아	무	리

망	망	바	다	외	로	운	배	한	척	이
큰	파	일	때	저	벳	사	공	어	절	줄
밝	은	보	고	배	안	에	도	하	나	님
잔	빛	하	시	이	불	쌍	한	인	생	을
성	내	어	쳐	권	능	의	손	그	노	를

떠	나	가	니	아	위	태	하	구	나	위	태	하	구	나
물	라	하	니	아	가	련	하	구	나	가	련	하	구	나
계	심	믿	고	오	기	도	울	린	다	기	도	울	린	다
살	리	소	서	오	우	리	하	나	님	우	리	하	나	님
저	으	시	니	오	잔	잔	한	바	다	잔	잔	한	바	다



본문 말씀을 2~3회 읽은 뒤 문맥을 고려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에 밑줄 긋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막 4:35)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막 4:36)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막 4: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막 4: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막 4: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막 4: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막 4: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십시오.

04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05 기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나의 기도

본문 : 마가복음 4:35-41

핵심질문 :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모습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는?

도입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좀 더 놀랐게 그리고 실체에 가깝게 드러내신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선명 해질수록 제자들은 좀 더 작은 예수로 살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정체가 제자의 정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그는 누구인가?

본문

광풍을 만난 배

출애굽 때 하나님 백성의 앞길을 막은 홍해가 있었듯이 제자 일행을 삼키려고 광풍이 바다를 춤추게 한다. 바다 전문가들인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요 큰 물결이었다. 이는 죽게 될 만큼 큰 위기 이지만, 죽음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다.

주무시는 예수님과 죽게 된 제자들

물결이 배에 부딪쳐 물이 배를 가득 채우고 있는 데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아무도 자신을 어찌하지 못할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예수 일 뿐이다. 나의 예수님 이해가 내 반응을 좌우 할 것이다.

바람을 꾸짖고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

홍해를 잠잠케 하고 바다 사이 마른 땅으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신 권능으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다. 제자들을 꾸짖어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다. 우리도 미친 바람 앞에서 예수님을 꾸짖을 것인가? 예수님의 권능을 바람을 꾸짖을 것인가?

결론

거센 혼돈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 할 것인가? 내 앞에 닥친 광풍과 바람이 일으킨 성난 물결을 두려워 할 것인가? 제자는 예수님 만을 의지하고 두려워 하는 자다.